

[전시시] '논쟁적' 작가 김홍석, 일용직노동자 시켜서 만든 작품도 예술?

이혜원 기자

2014-04-10 19:32

김홍석은 논쟁적인 작가다. 갤러리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아내는 퍼포먼스를 벌여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더니 이번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그는 미술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비판적인 작가일까,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작가일까?

김홍석 작가의 개인전 <블루 아워즈(Blue Hours)> 기자간담회가 10 일(목) 오전 국제갤러리 2 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작가의 지시로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여기를 매직펜으로 빼곡하게 칠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쉬우니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왜 이것이 미술 작품이 되고, 완성된 그림이 왜 작가의 지적 소유물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면 그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뒷모습이나 그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 김홍석 작가와 그가 일용직노동자들을 고용해 만든 걸레질 회화 연작 (사진=국제갤러리, 유니온프레스 이해원 기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만든 이 작품은 자연스레 '조수'라는 존재를 떠올리게 만든다.

어시스턴트(assistant)를 줄여 흔히 미술계에서는 '어시'라고 불리는 조수는 미술가의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수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감독처럼 지시를 내린 뒤 전부 조수가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화가들은 조수와 함께 벽화를 제작했지만 후대에는 작가의 이름만 남는다. 이처럼 조수가 작품 제작을 돕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미술계에는 논쟁적인 주제다.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지시만 내리는 이를 과연 예술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김홍석의 작품도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걸레질 연작 시리즈는 일용직 여성 노동자들이 물감이 묻은 걸레로 걸레질을 하다가 작가가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오면 '이제 그만'을 외치면서 완성됐다. 이러한 비화를 모르는 채로 작품을 보면 그저 추상미술 작품 중 하나로 보일 따름이다

이처럼 미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저 걸레질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작품'이 되어 평론의 대상이 되고 판매가 된다. 김홍석 작가는 이러한 미술계의 매커니즘을 폭로한다. 그를 제도 비판적인 작가로 보아야 할지, 제도를 역으로 활용한 작가로 보아야 할지는 관객들의 몫이다.

“나의 의도는 미술인가? 그 결과물은 미술인가? 나는 이것이 ‘지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 미술가가 발명한 미술을 아는 이들은 나의 작품을 소비할 것이고, 이것이 캔버스와 평범한 사물로 이루어진 조각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소비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분명 미술이 아닌데 미술로 소비된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미술이다.”

김홍석 작가의 개인전 <블루 아워즈>는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에서 개최된다.

URL: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68>

\